

나주시,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시민 에너지 격차 해소

도시가스 공급 1차 5개년 계획 완료...원도심 2100여세대 공급 수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도입 대폭 확대...주택 등 330개소 그린 홈 전환

나주시가 원도심 내 에너지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던 '제1차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나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82억원이 투입된 제1차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을 통해 나주, 영산포, 남평 등 원도심 권역 2100여세

대에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12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공급 세대를 2배 가까이 확대하는 등 지역 간 에너지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해소는 물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서며 큰

효율을 얻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비싼 석유나 전기를 사용해왔던 단독주택 거주 주민들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연간 연료비 약 35%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효용에 힘입어 시는 제2차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24억원이 투입되는 제2차 사업은 배관 38km구간을 구축하고 1100여세대에 도시가스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등 그린 홈(green home)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도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역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공산·왕곡·반남 3개 면 지역 주택 330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발전 설비 보급을 완료했다. 올해 역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세지·봉황면 지역 476가구를 대상으로 한 35억원 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정, 추진한다. 마을별 태양광 376곳(1158kW), 태양열 100곳(1020㎡·세지 54·봉황 46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 가구당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월간 전력사용량

을 350kWh 가량(약 5만5000원) 절감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다방면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갈 것"이라며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2차 도시가스 배관 연장 공사에 따른 통행 등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담양 고서면 발자취 집대성한 '고서면지' 편찬



담양 고서면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고서면지가 발간됐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고서면지편찬위원회(위원장 김용원)는 최근 고서면의 역사문화를 담은 고서면지를 발간, 배부했다.

고서면은 청평향교, 죽림재, 수남학구당 등 유교문화와 명옥헌원림, 송강정 등 아름다운 율림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면지 편찬 예산은 담양군 지원금과 지역주민·출향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부로 마련했으며, 주민들은 면지 편찬을 위해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고서면지 편찬위원회는 2018년도에 16명으로 구성하여 3년 간 무보수로 자료수집 및 수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통계자료와 마을별 유래 및 특징 등 고서면의 발자취를 총

망라해 약 1천 쪽 분량의 면지를 완성했다. 면지는 기관·사회단체와 주민에게 배부해 고서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용원 편찬위원장은 "고서면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한 고서면지가 면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이고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한 소중한 유산이 되길 기대한다"며 "면지의 편찬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전통시장 코로나19 회복 지원 앞장

사용료 50% 감면·화재보험 높은 비용 지원·이용자 편의성 개선



곡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먼저 전통시장 사용료를 2021년 1

월부터 6개월간 50% 감면한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등 지역 내 3개 시장 전체가 대상이며, 점포 뿐만 아니라 일반노점, 차량 노점 등도 사용료

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험도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비율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전라남도에서는 도비와 군비 각각 30%에 자부담이 40%로 화재 공제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곡성군은 군비를 40%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부담을 낮췄다. 가입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상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노후 방송시설을 교체하고,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시설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방문객이 시장에서 심정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추가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학사 2021년 신규 입학생 모집

구례군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유학하는 구례출신 대학생들의 보급 자리인 구례학사의 2021년 신규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립동 구례학사는 대지 416㎡, 연면적 1,482㎡의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로 지하철 2호선·7호선 대립역에서 도보 7분,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주요 대학과의 접근성이 좋다. 원룸형 1인 1실로 병상고,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씽크대, 전자렌지, 인터넷 등이 구비되어 대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입사정원은 24명이며 이번 모집 인원은 6명이다. 신청조건은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대학원의 신입·재학생으로 보호자가 입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자는 2월 16일까지 구례군 서울 또는 수도권 유학 구례학생 대상 6명 모집 다음달 16일까지 접수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접수하거나, 구례군청 평생교육과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입사 대상자는 학업성적 및 생활정도를 평가하여 2월 22일 확정할 예정이다. 구례학사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연간 약 1천8백만원의



장학금(재단법인 구례장학회 및 개인)을 지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평생교육과(061-780-2229)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박진호기자**

구충군 화순군수 "아이들 교통안전 지키자"

구충군 화순군수가 1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구 군수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챌린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운전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작했다. 구충군 화순군수는 이승우 강진군수와 류태호 태백시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구충군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서는 잠시 멈추고 주변을 충분히 살핀 후 운전하자"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귀농귀촌 1번지' 장성군 귀농·귀촌 정착지원 확대

장성군이 올해, 한층 강화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 8개 사업(53개소)을 펼쳐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이달 27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군은 연 평균 1500가구의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고 있는 귀농·귀촌 1번지"라면서 "2021년에도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 360 - 7183 **곡성토란 GOKSEONG TARO**